

Session 07 예수님의 천년 왕국 보좌 : “영광의 통로” (Jesus' Millennial Throne : "The Corridor of Glory")

I. 하나님의 주요 계획 :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되게 하심¹⁾

그 뜻의 비밀(감추어진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9-10)

- A.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계획)들에 대해 이해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영역을 하나로 합치심으로 온 땅에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하셔서 그것들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 B.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함께 살게 되는 것에 있어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시기보다,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사시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외는** 성도들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임시적인 거주 장소”에 있는,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부활체의 몸을 기다리는 2,000여 년 동안의 기간(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이다.
- C. **기본 정의 :** 하늘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이며 영적 영역이다. 땅은 인간의 감성과 육체적인 지각이 온전하게 풀어지는,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영역이다. 천년 왕국의 땅과 새 땅은 물리적인 실체로 구성될 것이다. 땅과 하늘의 영역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부활체의 몸을 필요로 한다.** 귀신들(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그들 자신들이 더욱 표현되고 활동하기 위해 인간들 안에 머물기를 구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인간 안에 거주)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마 12:43-44)

- D.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이 그분의 성품과 목적들을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로 맺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처음에는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땅으로 내려오는(계 21:10) **첫 번째 단계**와, 새 예루살렘이 새 땅을 향해 내려오는(계 21:2) **두 번째 단계**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1) 역자주 : 앞서 나온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매 Session의 시작에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원문의 의도에 충실하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 E.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위한 예수님의 나라의 4가지 측면들 : **하늘** - 하늘의 권능과 임재, 천사, 새 예루살렘이 있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영역. **에덴 동산** - 천년 왕국의 지구와 새 예루살렘에 펼쳐질 기쁨으로 가득 찬 실제적인 천국. **다윗의 왕국**(다윗의 보좌) - 공의로운 왕이 모든 땅을 통치하는 신정 통치. **지성소** - 친밀한 동역관계로 있는 예배하는 신부.
- F. 하늘과 땅의 연결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대상은 그분의 형상을 가진, 성령으로 충만한 인간이다.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천사들, 그리고 천년 왕국의 거주자들과 함께 지구를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1. **인자** -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부르실 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골 1:16)이자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 자신의 신성에 대해 강조하시는 다른 호칭보다 대부분 이 호칭을 사용하셨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흠으로 지어진 죄 있는 육신의 모양(롬 8:3)을 가지신 그의 인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다.

... 하나님은 하시나니 ...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 (롬 8:3)

- a. 열방의 왕으로서 관 쓰시는 예수님은 인자의 모습을 보이신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예수님)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아버지)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 (단 7:13-14)

- b. 에스겔은 하늘에서의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진 구약의 선지자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 지칭할 때는 흠으로 만들어진 그의 인성에 대해 드러내기 위해 "인자(son of man)"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 대해 인자라는 표현을 93번이나 사용하셨다.
- c. 여기에서의 주요 강조점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땅에 대해 깊이 헌신되어 계시다는 사실이다.

II. Session 6-9에 대한 요약

- A.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영역을 하나로 합하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왕국을 충만하게 세우시는 것이다.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은 하나님의 인격과 목적들을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해 하나로 합쳐져야만 한다.

그 뜻의 비밀(감춰진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9-10)

- B.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은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지구의 바로 위에 두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게 됨으로써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부분적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이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의 두 번째 단계는 천년 왕국 이후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부분이다.
- C.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 즉 이 땅에 다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와 있게 되는 이유에는 적어도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땅의 왕들이 천년 왕국 때에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다(계 21:24). 두 번째로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의 소성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부분이다(계 22:2). 세 번째로 죄인들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천사들이 막는 부분이다(계 21:12, 22:14-15; 창 3:22-24).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지구에서 구원받지 못한 나라들을 제외한 구원받은 나라들을 비추게 되는 부분이다(계 21:24; 20:7-9). 다섯 번째로, 천년 왕국 예루살렘은 대략 $25km^2$ 정도의 크기이며(4,500척 x 4,500척)(겔 48:30-35; 45:6; 48:15-19)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1,500마일(2,400km) 정도이다.
- D.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다(마 25:31; 렘 3:17; 겔 43:4-7; 숙 6:12-13). 천년 왕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도 존재하게 될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땅과 하늘의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늘의 통치와 땅의 통치는 두 예루살렘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완전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계 22:3).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마 19:28; 눅 22:29). 그러나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통치는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
- E. 땅에서의 예수님의 보좌와,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보좌는 명백히 하나의 보좌이다. 두 예루살렘의 하나 됨을 위해 “영광의 통로(Corridor of Glory)”가 세워지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12가지 중요한 측면들이 역동적으로 하나로 수렴(converge)하게 된다(여기서 수렴은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합치점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수렴이라는 표현은 각각의 영역(하늘과 땅)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연합된 실체가 되는 명백하게 하나가 되면서 서로 겹쳐지게 되는, 모순되는 듯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F.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의 12가지 중요한 측면들은 1) 산 2) 예루살렘 도시(12개의 문을 가진) 3) 하나님의 전(God's House,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곳, 계 21:1-8) 4) 지성소들(성전들) 5) 에덴 동산(실제적인 천국) 6) 치유하는 강, 7) 나무들(12가지 실과들이 달마다 맺히는), 8) 대로, 9) 회오리바람(토네이도와 같은 영광의 통로), 10) 구름 기둥, 11) 향연(향이 나는 연기), 12) 빛나는 불(예루살렘을 둘러싸는)이 그것이다.
- G. 우리는 하나님의 전의 산-도성인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대해 살펴보게 되며, 또한 (12개의 문을 가진) 예루살렘 도성, 거룩한 산, 두 개의 지성소(성전들), 두 개의 동산들(에덴 동산), 두개의 강들, 두 개의 나무들, 두 개의 대로들을 포함한 두 영역(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수렴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 H. 우리는 이사야에 의해 묘사된 연기와 빛나는 불과 구름(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아있는 영광의 기둥)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통로(회랑, Corridor)”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에스겔에 의해서는 이 “통로”는 회오

리바람(whirlwind, 예수님의 전차-보좌를 감싸고 있는 광대한 영광의 토네이도 통로, 겔 1장)으로 묘사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 통로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새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의 지구상에 있는 그분의 성전을 연결하는 엄청나게 큰 “하늘의 엘리베이터”로 묘사했다.

- I. 회오리바람, 영광의 구름 기둥, 향연 그리고 빛나는 불은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새 예루살렘)을 천년 왕국의 땅에 있는 그분의 성전과 연결하며, 땅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안식처를 세우게 된다(사 66:1; 11:10; 시 132:7-14).
- J. 새 예루살렘(하늘의 성전)은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천년 왕국 시온 산의 성전)의 바로 위로 내려오게 된다. 즉,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산-도성-전, Mountain-City-House) 또는 그분의 광대한 통치 단지는 천년 왕국 성전과 새 예루살렘 둘 다를 포함하며, 이 둘은 영광의 구름과 연기와 불기둥이 회오리바람처럼 예수님의 전차-보좌(Chariot-Throne, 겔 1장) 주위를 감싸고 있는 “영광의 통로”로 연결된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땅에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안식처(Resting Place) 또는 그분의 발등상(사 66:1; 11:10)이 된다.

III.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 (땅과 하늘의) 두 가지 차원

- A.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영광으로 오시며 온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예수님의 재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현재 이 땅에 있는)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마 25:31-32)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표준새번역:백 배나)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 19:27-29)

- B. 예수님께서서는 땅에서의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세우시며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보좌라고 불리는 이것은 명확하게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그 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렘 3:17)

- C. 예수님의 보좌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천년 왕국 성전에 있게 될 것이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예수님)이 자기 곳(새 예루살렘)에서 돌아나서(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성전에서 섬기는)이 자기 위(보좌)에 있으

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속 6:12-13)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7)

(표준새번역 :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D.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는 천년 왕국 성전의 지성소에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천년 왕국 성전)으로 들어가고 5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 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6 들은즉 누구인지 전(지성소)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7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 (겔 43:4-7)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사 66:1)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시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애 2:1)

E. 세 가지의 명백히 서로 다른 부분인 하늘, 땅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의 더 큰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마 5:34-35)

F. 예수님의 보좌는 또한 땅으로 내려오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보좌는 명확하게 새 예루살렘에 있고, 또한 명백하게 천년 왕국 예루살렘에도 존재한다.

...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 22:3)

G. 정리 : 예수님께서는 하늘(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다스리시며, 땅(땅의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의 아들로써 다스리신다. 그분은 두 영역을 하나로 맺으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마 28:18). 하늘과 땅에 대한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은 두 도성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충만함을 하나로 합치셔서 “땅의 부활”이 일어나도록 하신다.

IV. 두 예루살렘의 연결 : “영광의 통로”에 대한 개념 정립

STUDIES IN THE MILLENNIAL KINGDOM - 마이크 비클

Session 07 예수님의 천년 왕국 보좌: “영광의 통로”

- A. 새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는 어디로 내려오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천년 왕국 성전이다.
- B.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인가 아니면 둘인가??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내 의견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광대한 영광의 통치 단지로써 새 예루살렘의 그분의 보좌는 “북쪽의 끝”에 있으며, “남쪽의 끝”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 둘 사이에 “영광의 통로”가 존재하게 된다.
- C. 나는 이 “통로”가 하나님의 무겁고 명확한 임재의 광채로 가득 차 있으며,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예수님의 하나의 보좌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 (히 1:3)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시 50:2)

(표준새번역 :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 119:96)

- D. 영광의 보좌는 두 예루살렘(천년 왕국과 하늘의 예루살렘), 두 지성소, 두 동산, 두 강, 두 개의 나무, 두 개의 대로가 그 사이의 회오리바람과 영광의 구름을 통해 역동적으로 수렴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또는 땅에서의 그분의 영광스러운 안식처를 형성하는 위대한 산이자 도성을 말한다(사 66:1, 11:10).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자원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들 안에 그분의 거할 처소를 찾으신다(계 21:1-8). 우리는 이 모든 진리들을 하나로 “영광의 통로”라고 지칭한다.

V. “영광의 통로”는 하늘의 구름, 연기와 빛나는 불(화염의 빛)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5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겔 40-48 장의 성전 건물들)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사 4:4-5)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속 2:5)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 8:4)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계 15:8)

- A.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대로에 관한 질문은 그 대로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사 35:8)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 24:3-4)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21:12)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 22:14-15)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음이여 5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6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7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와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시 48:4-8)

VI. 그들 가운데 있는 “영광의 통로”의 표적이 함께 하는 출애굽 여정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 19:18)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사 6:4)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을 2:30)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출 13:21)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 14:19)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표준새번역 :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 14:24)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출 33:9-10)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민 12:5)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민 14:14)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신 31:15)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시 99:7)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셨사오며 19 주께서는 연하여 긍
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느 9:12,19)

VII. 구름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 14:2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
라 (출 16:10)

제 삼 일 아침에 우뢰와 번개와 뽀뽀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 19:16)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출 24:15)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육 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 칠 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
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출 24:16)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 24:18)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 모든 백성
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출 33:9-10)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출 34:5)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
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
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
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출 40:34-3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레 16:2)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16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민 9:15-16)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민 11:25)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민 14:14)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민 16:42)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신 4:11)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신 5:22)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신 31:15)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2 그 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왕상 8:10-12)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1 그 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대하 5:13-6:2)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욥 26:9)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시 78:14)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시 105:39)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

갓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사 19: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2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3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
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시 104:1-3)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애 3:44)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취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겔 1:4)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
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겔 1:28)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겔
10:3-4)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35 구름 속
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눅
9:34-35)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눅 21:27)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행 1:9)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
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전 10: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
도 구경하더라 (계 11:12)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
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16 구름 위
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 14:14-16)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표준새번역 :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신 33:26)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

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 68:4)

(표준새번역 : 광야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에게, 길을 열어드려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시 68:34)

(표준새번역 :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힘은 구름 위로 뻗는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 97:2)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 14:14)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3-14)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 24:3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 26:64)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 1:7)

A.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연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 8:4)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 15:8)

B. 하늘과 땅의 연결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대상은 그분의 형상을 가진, 성령으로 충만한 인간이다. 즉, 예수님께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그분의 신부들(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풀어놓으시면서 하늘과 땅의 근본적인 연결점이 되신다. 예수님의 영원한 동반자(신부)는 이 영광스런 계획에 완전하게 동참하게 될 것이다(사 61:3; 시 90:17).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신)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인간)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 1:49-51)

- C.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은 그들이 통과한 “빛의 터널”이다. 이 터널로 된 통로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갈수록 이 빛은 더욱 더 영광스러워졌다는 공통된 증언도 들을 수 있다. 천사들이 에덴 동산으로 가는 입구를 지키듯이, 아마도 이 통로는 이미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다” (마 7:13) 부분을 기억할 때, 지옥으로 향하는 “어둠의 통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VIII. 북쪽에 있는 새 예루살렘

- A. “땅의 북쪽”이라 언급되는 부분은 그 높이(1,500마일 ≈ 2,400km)와 관계가 있다.
- B.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북쪽”(겔 48장)에 있음으로 근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IX. 북쪽에 위치한 새 예루살렘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시 48: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표준 새번역 : 저 멀리 북쪽 끝)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 14:12-14)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23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욘 37:22-23)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욘 26:7)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예수님의 전차 보좌)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취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겔 1:4)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천사들)로 각기 살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2 내가 본즉 여섯 사람(천사)이 북향한 윗문 길로 좇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찻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겔 9:1-2)

- A.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천년 왕국 성전은, 에스겔 47:13-48:35에 설명된 땅의 위치와 크기들을 비교

할 때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천년 왕국 예루살렘)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겔 40:2)

B. 새 예루살렘은 북쪽에 위치해 있고, 천년 왕국의 강은 성전의 동쪽 방향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겔 47:2)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슌 14:4)

X.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두 가지 역동적인 차원을 가진 하나의 실체이다.

A.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하나의 실체이자 두 가지 역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각각 하늘과 땅에서의 측면이다. 나는 “영광의 통로”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시편 48편과 에스겔 40-48장을 인용하곤 하는데, 그 말씀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의 두 가지를 말하면서 하나의 실체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역자주 : 아래는 역설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의 예들이다)

1.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때 가지고 오는 자연계의 물질

만국이(천년 왕국의 나라들)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리라 25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계 21:24-26)

2. 만국에 대한 치유가 여전히 필요함

...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2)

3. 성소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측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 28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겔 37:25,28)

XI. 새 예루살렘은 두 단계를 거쳐서 내려온다 (계3:12; 21:2,10)

A. 계시록 3:12절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실에 대해 밝히지만, 두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 3:12)

- B.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두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첫 번째 단계로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 땅으로 내려오는 단계(계 21:10)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로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오는 단계(계 21:2)를 거치게 된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사실에 대해 알리시고, 이 후에 이것이 두 단계로 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모습이다. 이것은 구약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예언했지만 그것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과 매우 유사하다.

1. 첫 번째 단계에서, 새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땅으로 내려온다(계 21:10). 그 후 두 번째 단계에서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온다(계 21:2).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 21:10)

2. 두 번째 단계에서 새 예루살렘은 새 땅으로 내려온다(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2)

- C.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내려옴은 천년 왕국의 시작점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대와 연관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은 이 땅(지구) 위로 다가온다. 땅 위에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존재하게 된다.
- D.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과는 서로 다른 대상이며, 천년 왕국 예루살렘에 내려앉은 것이 아닌 그 위에 있음을 말해주는 근거는 적어도 다섯 가지가 있다.

1. 땅의 왕들이 천년 왕국 때에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 21:24)

2. 만국을 소성하기 위한 앞사귀가 존재함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앞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2)

3. 천사들이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21:12)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 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 24:14-15)

4. 새 예루살렘이 온 땅을 비춘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 21:23-24)

5.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넓이는 약 25km² 정도이다(겔 40-48장).

E. 요한계시록 21-22장의 개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두 번에 걸쳐 내려오는 것과의 관계

1. 계 21:1-8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놀라운 영적인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일은 계시록 20장 이후에 시간 순서대로 펼쳐지는, 예루살렘 성의 두 번째 내려옴에 대해 말하고 있다.
2. 계 21:9-22:5은 시간과 영원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영원과 일시적인 측면 두 가지 다를 내포하고 있다. 이 구절들은 연대기적인(시간 순서대로의) 구성이 아닌 삽입 구절에 속하며, 이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천년 왕국이 생겨나고 있는 시간대에 속한 일이다. 이는 영원만을 말하고 있지도, 어느 한 순간의 일만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계시록 21:9-22절은 그 도성의 영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시록 21:23-22:5절은 천년 왕국 시대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F. 성도들은 천년 왕국의 땅에서 다스리지만(마 19:28; 눅 22:29),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지만,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의 일들은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는 마치 미국의 상원의원이 그들의 집이 있는 주(州)에서 살고, 워싱턴 DC에 정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XII.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시 37:29; 78:68-69; 104:5; 105:10-11; 125:1-2; 왕상 8:13; 9:1-3; 왕하 21:7; 대상 15:2; 23:25; 28:8; 대하 7:16; 20:7; 30:8; 33:4,7; 사 60:20-21; 겔 37:25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겔 37:25-28)

- A.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 13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5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대하 7:12-16)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대상 23:25)

야곱에게 세우신 울레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11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 105:10-11)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시 104:5)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사 60:20-21)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 69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한글 KJV : 그가 영원히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시 78:68-69)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 125:1)

- B. 다윗왕은 가르치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대상 23:25)

...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대상 28:8)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시 37:29)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뭇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시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대상 15:2)

- C.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주를 위하여 건축하였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왕상

8:13)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 2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 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왕상 9:1-3)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대하 7:16)

D. 유다왕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므낫세가) 단들을 쌓고 (대하 33:4)

또 자기(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들지라 (대하 33: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들지라 (왕하 21:7)

E.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때 이를 두고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대하 20:7)

F. 히스기야는 에브라임과 (앗수르 왕들에게서 겨우 도망친) 므낫세에 대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편지했다. 그는 그들에게 목이 곧은 자들이 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말했다.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영히 거룩케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대하 30:8)

XIII. 큰 왕의 성 (시 48편)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보다 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3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4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음이며 5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 12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13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 48:1-13)

XIV. 시온 산 : 천년 왕국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포함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 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약 1,500마일 = 2,400km)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 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 21:10-21)

- A. 새 예루살렘은 약 2,400km 높이를 가지고 있다. 대기권의 높이가 1,000~1,200km인 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에베레스트)이 해면고도로 약 8km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으며, 바다의 가장 깊은 곳도 약 12km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B. 천년 왕국 예루살렘은 산에 있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천년 왕국 예루살렘이 땅의 모든 산보다도 높이 올려진(사 2:2, 미 4:1) 하나님의 산에 있음을 묘사한다(겔 40:2; 17:22; 20:40). 이 묘사는 현재 예루살렘이 있는 언덕 정도의 지형(해면고도 2,500ft = 760m)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겔 40:2)

- C. 여호와의 전의 산은 두 예루살렘을 잇는 영광의 통로를 가리킨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 (사 2:1-4)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미 4:1)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10 온 땅이 아라바(광야, 평야)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슥 14:4,10)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 69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시 78:68-69)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와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댄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렘 31:1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시 99:2)

XV.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 A. 여기서의 “시온”은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며, 이는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서 온 땅이 보고 놀라는 통치를 위한 영광의 통로를 이룬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사 62:7)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을 삼으시고 18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9 서방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2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예루살렘)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사 59:17-20)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악마적 천사들)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천년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불못에 던져짐) 23 그 때에 (새 땅에서)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사 24:21-23)

XVI.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 고함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표준새번역 : 네 마음에 새겨둘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들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겔 40:4)

그 기지가 성산에 있음이여 2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데도 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시 87:1-3)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13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 48:12-13)

(표준새번역 : 너희는 시온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 보아라. 13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Note : 이 땅(지구)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 시 37:29; 78:68-69; 104:5; 105:10-11; 125:1-2; 왕상 8:13; 9:1-3; 왕하 21:7; 대상 15:2; 23:25; 28:8; 대하 7:16; 20:7; 30:8; 33:4,7; 사

STUDIES IN THE MILLENNIAL KINGDOM - 마이크 비클

Session 07 예수님의 천년 왕국 보좌: “영광의 통로”

60:20-21; 겔 37:25.

이사야 34:10절 - 에돔에 관한 말씀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 세세에 황무하여 / 그리로 지날 자가 영
영히 없겠고